

“복지 관련 부정·비리 등 제보 받습니다”
☎ 062-971-7400



복지 데스크

신안군, 윤택하고 편안한 어르신 복지 적극 추진

초고령화 사회 맞춰 노인복지사업 예산 전체 7.8%

“맞춤형 복지 강화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지원”

신안군은 4만 여명 인구 중 노인 인구가 1만200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4%를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발맞춰 민선7기 출범과 더불어 맞춤형 복지 강화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노인복지사업 예산이 588억 2873만원으로 전체예산 7564억 4471만원 중 7.8%를 차지하는 등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어르신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을 위해 만65세 이상, 소득 70% 이하인 어르신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매월 최대 30만원까지 1만2000여 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와 경제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10개 사업단 1,300여 명에게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군비 5억을 추가하여 보건진료소 안전지킴이, 복지시설 관리지원 등 신규사업 발굴하여 200여명에게 추가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12월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인들의 여가활동의 장인 경로당 400여 개소에 부식비, 냉난방비, 운영비 등에 18억 8105만원 지원하였고,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무더위 쉼터 지정 및 냉방기 등 물품 지원으로 경로당 운영 활성화와 건전한 노년여가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활력이 떨어지고 고독사 등 노인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독거노인 1,130명에게 주1회 가구 방문, 2회 전화 안부 확인 등으로 어르신들에게 제2의 든든한 가족이 되어 주고 있다.

이 밖에도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 1,160명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보행 편의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우양산 지원으로 노인복지 향상에 더욱 앞장설 것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어르신의 노후 소득보장 및 자립기반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으로 여가생활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복지 신안을 위해 민선7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어르신의 노후 소득보장 및 자립기반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으로 여가생활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복지 신안을 위해 민선7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어르신의 노후 소득보장 및 자립기반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으로 여가생활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복지 신안을 위해 민선7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어르신의 노후 소득보장 및 자립기반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으로 여가생활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복지 신안을 위해 민선7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3년여간 광주·전남서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81건

최도자 “사법절차 지원 인력 부족”

최근 3년여 동안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8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749건이 발생했다.

이중 광주는 56건의 범행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28건, 2017년 17건, 2018년 6건, 2019년 5건 등으로 확인됐다.

전남은 총 25건이 발생한 가운데 2017년 5건, 2018년 4건, 2019년 16건 등 집계됐다.

최 의원은 이런 상황이지만 보조인·변론업무 수행, 고소장 작성 등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재직 중인 변호사 2명을 제외하면, 17개 지역센터 중 변호사가 재직 중인 센터는 단 한 곳도 없다”고 했다.

이어 “변호사를 센터에 배치하도록 권고하는 지침은 있다”며 “하지만 지역 센터에 배치되는 변호사의 연봉수준이 공공기관 평균 변호사 연봉의 50% 수준에 그쳐 신규채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수사·재판 진행과정에서 발달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발달장애인들이 전문적인 법률지원서비스를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법률전문 인력 증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1

코레일, 보훈 및 장애인

신입사원 70명 채용한다

코레일이 보훈 및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신입사원 70명을 채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직무는 사무영업, 차량, 토목, 건축, 전기통신의 5개 분야로 보훈대상자 40명과 장애인 30명을 선발한다.

보훈 전형의 경우 직무별로 사무영업 5명, 차량 10명, 토목 10명, 건축 5명, 전기통신 10명이다. 장애인 전형은 사무영업 5명, 차량 10명, 건축 5명, 전기통신 10명을 뽑는다.

채용 절차는 지원서류검증과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의 순서로 나가고 출신지역 등이 공개되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자는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10월 2일 오후 2시까지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채용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원택 코레일 인재경영실장은 “사회형평적 채용에 힘써 앞으로도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담양군지회, 기초재활교육 실시

회원과 인솔자 24명 등산활동·두부 만들기 체험 등 진행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담양군지회(지회장 김대호)와 담양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센터장 신미정)에서는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지부의 지원을 받아 회원과 인솔자 24명과 함께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을 최근 실시하였다.

곡성군 가정농촌체험마을에서 진행된 기초재활교육은 가정마을 근처 등산로를 따라 등산활동을 하고 난 후 점심식사를 마치고 마을에서 운영하는 두부 만들기 체험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바깥 활동이 쉽지 않은 시각장애인들의 특성상 이번에 진행된 기초재활교육에 대한 회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

기초재활교육에 참석한 회원은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등산하니 팔도 조금 나면서 개운하다며 이런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으며 다음에도 꼭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도 전했다.

한편, 담양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는 관내 이용시 편도 1,000원의 저렴한 이용료로 관내 등록된 장애인들의 이동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061)383-1120으로 문의하면 된다.

담양=박종영 기자

야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 Together 광산구

Drawing 이호동